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4.2.26.(월) 조간	배포	2024.2.23.(금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투자검사2국	책임자	국 장	김재형	(02-3145-7690)
	검사1팀	담당자	부국장	이장훈	(02-3145-7645)
	검사4팀	담당자	팀 장	최태민	(02-3145-7621)

**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,
근절될 때까지 검사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**

주요내용

- ◆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 중이며,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다양한 수법의 사익 추구 행위가 계속적으로 확인*(잠정)

* 그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검사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·보도되었으며('23.7.19., 10.12., 10.17., '24.1.11.), 최근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 확인

- ①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와 본인이 투자한 타 운용사의 펀드 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거나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소홀

- ②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부동산 펀드, PFV를 운용·관리하면서 지득한 사업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가족법인 명의로 출자사에 투자하거나 사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이익 추구

- ③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이 본인이 운용하는 펀드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운용사 측에 자문회사를 알선하고, 알선의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해당 자문회사로부터 금전 수취

- ◆ 금융감독원은 발견된 위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, 금융투자회사의 고질적인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 향후에도 검사역량을 집중할 예정

I. 검사실시 배경

- 금융감독원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회사 대주주 및 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중점 검사 항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.

* '23년도 업무계획('23.2.6. 발표), 금융투자 업무설명회('23.3.16. 개최) 등 참고

- 그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*되었으며,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 위규행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* 금융투자회사 대주주·임직원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관련 보도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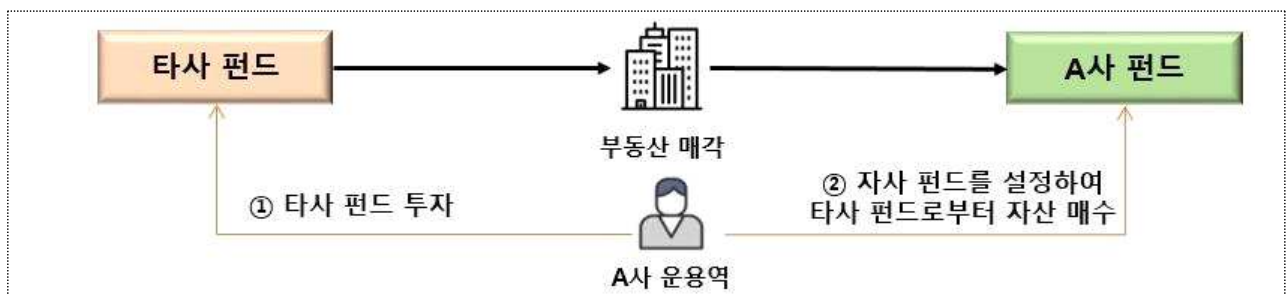
No	보도일자	위반행위 주체	분야	주요 위반행위
1	'23. 7.19.	운용사·증권사 대주주·임직원	펀드·PFV 등	직무정보를 이용한 투자, 허위·가공계약, 부당한 영향력 행사
2	'23.10.12.	증권사 임직원	기업금융	직무정보를 이용한 사모 CB 투자 등
3	'23.10.17.	운용사 대주주·임원	펀드·PFV 등	직무정보를 이용한 투자, 부당한 영향력 행사
4	'24. 1.11.	증권사 임직원	부동산 PF	직무정보를 이용한 투자, 사적금전대차 등

II. 주요 검사내용 (잠정)

※ 위반혐의는 향후 제재 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

1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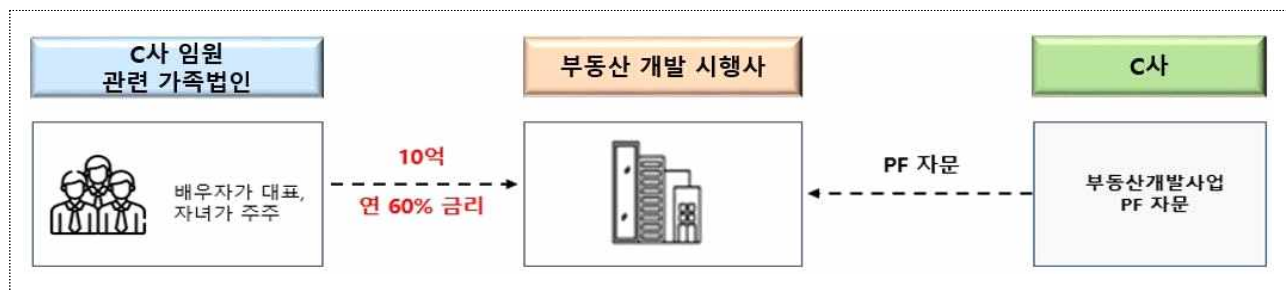
- (사례 1) A사 운용역은 ①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②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에 본인이 자사의 ③펀드를 설정하여 ④펀드로부터 ⑤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으나,
- 이와 같은 사실을 A사나 ③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으며, 해당 운용역은 위 거래 이후 ③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원을 상환받았습니다.



- **(사례 2)** A사 운용역은 자사 ㉠펀드의 펀드 자산을 타사 리츠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 직전 매수인 즉 리츠에 본인 소개로 본인 및 가족·지인들이 리츠의 사모유상증자에 약 20억원 참여하는 등 거래가 있었음에도
 - 금융투자회사인 A사와 ㉠펀드 투자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위와 같은 거래 사실을 A사나 ㉠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.

2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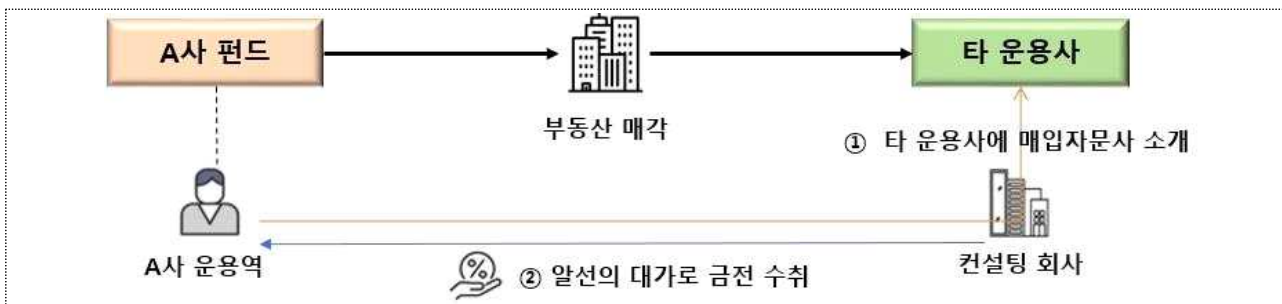
- **(사례 1)** B사 운용역들은 PFV*(Project Financing Vehicle)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관련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수지, 현금흐름 등 투자 판단에 중요한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하여
 - * 부동산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
 - 해당 개발사업의 출자사에 배우자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총 약 2억원을 투자하고, 개발사업 종료 후 투자금의 3배 이상의 금원을 각 상환받았습니다.
- **(사례 2)** C사 임원은 PF 대출금 조달을 자문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PF 조달정보, 사업수지 및 사업계획 등 비공개 직무상 정보를 지득하고
 - 가족법인을 통해 시행사에게 거액의 초기사업비 10억원을 대여해주고,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한도를 초과한 연 60%의 고리 이자를 수취하였습니다.



3

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

- (사례 1)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,
- 그 알선의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의 금전을 수취하였습니다.



- (사례 2) A사 운용역은 업무상 알고 지내던 타 증권사가 인수한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
- 해당 증권사에 주식을 매수할 다른 투자자들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본인의 가족회사가 매수하는 주식 매입가의 할인(할인율 5%)을 받았습니다.

III. 향후 계획

- 금융감독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,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회복을 위하여
-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, 향후 검사에서도 동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,
 - 개인·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판단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